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227

JCCT 2022-3-29

## 石田 黃旭의 書藝美學 고찰

### A Study on the aesthetic of Calligraphy by Seok Jeon Hwang Wook

김도영\*

Kim Doyoung\*

**요약** 호남 서부의 전통적인 文翰世家의 후손인 石田 黃旭(18913~1999)은 근·현대 서화계 흐름에 합류하지 않고 평생토록 선비의 풍모를 잃지 않고 自適之適하면서 오로지 전통서예에 천착하면서 독창적 악필법과 서예세계로 만년에 각광을 받았던 인물이다. 6.25 전쟁 직후 두 아들의 좌익활동으로 인해 가정적으로 큰 아픔을 겪으면서 가산은 탕진되었다. 이처럼 인간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시기에도 筆墨詩琴에 의지하며 올곧은 선비정신과 민족애를 잃지 않으며 尙古正心하였다. 그리고 세속적인 감각의 쾌락을 초월한 無己無欲의 '참된 즐거움(大樂)'속에서 자득하고 逍遙遊하였다. 그의 학서과정은 특별한 스승없이 왕희지·구양순·안진경·조맹부와 신위·이삼만 등의 서체를 집중 연마하였다. 특히 환갑 이후에 찾아온 수전증으로 인해 질필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강인한 의지력을 발휘하여 그 누구도 범접치 못할 雄健剛氣의 악필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예품과 예격으로 환골탈태하였다. 1965년~1983년까지는 '우수 악필법'을, 1984년~1993년 시기는 '좌수 악필법'을 사용하였다. 1973년(76세) 첫 개인전인 회혼기념서예전을 통해 서예가로서의 명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그의 필법은 역대 서법과 인위적인 기교를 초탈하여 天然拙樸한 본성을 발현하여 生硬하면서도 근골이 넘친다. 그리고 沈着險勁한 錐劃沙와 重厚雄健한 印印泥한 개성적 필의는 기이한 신운을 자아내며 기존 서법을 뛰어 넘는 독창적인 石田體를 이루었고, 그의 불굴의 서예정신은 한국서예사에서 독보적 존재로서 여전히 귀감으로 남는다.

**주요어** : 석전 황욱, 석전체, 상고정심, 악필법, 천연졸박, 추희사, 인인니

**Abstract** Seok Jeon Hwang Wook (18913~1999), a descendant of a traditional literary writer in the western part of Honam, did not join the flow of modern and contemporary calligraphy and painting. And throughout his life, he enjoyed himself without losing the appearance of a scholar, immersed himself in traditional calligraphy, and gained spotlight at his late age for his original hand grabbing calligraphy.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all of his property was lost due to his two sons' left-wing activities, causing great pain at home. Even in the most painful and difficult time in human history, he relied on brushes, poetry, and gayageum to keep his upright scholarly spirit and national love. And beyond the pleasures of the worldly senses, he played with self-satisfaction in the 'true pleasure(大樂)' without greed. In the course of his studies, he focused on honing the fonts of Wang Hui-ji, Gu Yang-sun, An Jin-gyeong, Jo Maeng-bu, and Xin-wi and Lee Sam-man without a special teacher. In particular, he faced a crisis of having to give up his brush due to tremor that came after his 60th birthday, but he showed a strong will. He transformed it into a new style of art, such as developing hand grabbing calligraphy(握筆法) with a strong and strong energy that no one could match. From 1965 to 1983, 'right hand grabbing calligraphy' was used, and from 1984 to 1993, 'left hand grabbing calligraphy' was used. She made her name as a calligrapher widely known in 1973 (age 76) with her first solo exhibition, The Calligraphy Exhibition commemorating her 60th wedding anniversary. His writing method is naturally rough and sloppy by breaking away from the previous calligraphy methods and artificial technique, and is unfamiliar yet full of muscle. And the calm, strong and rough chuhoeogsa(錐劃沙) and the heavy yet majestic ininni(印印泥) individual handwriting expressed a strange feeling and achieved original Seokjeon calligraphy that went beyond the existing calligraphy writing methods, and his indomitable calligraphy spirit was As a unique existence in the history of calligraphy, he still remains as a model.

**Key words** : Seok Jeon Hwang Wook, Seokjeon calligraphy, Respect the old and rectify the heart(尙古正心), Hand grabbing calligraphy(握筆法), Naturally rough and sloppy(天然拙樸), Chuhoeogsa(錐劃沙), Ininni(印印泥)

\*학술이사,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문화재학박사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1월 28일, 수정완료일: 2022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Received: January 28, 2022 / Revised: March 1, 2022

Accepted: March 8, 2022

\*Corresponding Author: kdy3019@naver.com

Dept. of the faculty of liberal arts, Yewon Arts Univ, Korea

## I. 서론

예로부터 전북은 풍요로운 평야지대와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음식과 풍류, 문화예술이 만개하였던 藝道였다. 조선조에는 전통적·보수적 분위기가 농후하여 이 지역 사대부는 선비문화인 서예를 중심으로 인격수양과 예술활동을 하였고, 많은 서화가들이 배출되거나 교류가 이루어진 곳이다. 그리고 18C 말엽 근대기에 들어서 蒼巖 李三晩(1770~1847)이라는 걸출한 서예가가 등장하여 독창적 심미경지를 이루면서 수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書派를 형성하면서 한국서예사의 큰 흐름을 선도하게 된다. 그리고 蒼巖의 출현을 기점으로 전북 서예의 판도가 일변하여 蒼巖의 서예정신을 계승한 書脈이 書團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구한말에는 전북 서예의 中興祖인 石亭 李定稷(1841~1910)이 홀연히 등장하면서 전북 서단은 비로소 사·서·화 삼률이라는 형이상학적 예술세계를 지향하면서 예격을 갖추기 시작한다.

전북 서단은 20C 중·후반 이후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공모전 활성화로 인해 지역과 공간에 큰 구애됨 없이 전주와 주변 도시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와 제자 양성이 이루어졌다. 한국 서단은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官 주도의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國展’)을 통한 작가들이 주도적으로 서단을 이끌었다. 당시 전북의 대표적 서예가를 살펴보면, 剛菴 宋成鏞(1913~1999)과 南丁 崔正均(1924~2001) 그리고 如山 權甲石(1924~2008)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나름대로 전국 및 지역 단위 공모전을 통해 꾸준히 후진을 양성하면서 門徒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 문도를 중심으로 서숙전과 개인전, 그리고 국내·외 교류전 등 활발하게 문예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전북서단과 전주 서화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書品과 書格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서예의 대중화라는 확장성 측면 및 생업으로서의 직업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러한 근·현대 서화계 흐름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평생토록 自適之適하면서 구도자와도 같은 신념으로 오로지 전통서예에 천착하면서 독창적 악필법과 서예세계로 만년에 각광을 받았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石田 黃旭(1898~1993)이다.

石田은 근·현대기 역사적·정치적 격동과 이데올로기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으며 지나간 세월을 장수하면서 초지일관 선비의 풍모를 잃지 않고 풍류와 서예에 몰입하였다. 특히 환갑 이후에 찾아온 수전증으로 인해 절필의 위기를 겪었으나 이러한 신체적 장애를 강인한 의지와 서예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하고 자신만의 악필법을 터득하여 새로운 서예심미의 경지를 이룬 서예가이다.

이에 본고는 石田이 평생 시류에 영합하거나 서단에 진출하지 않고 오로지 詩琴과 寄情筆墨으로 일관한 풍류적 삶과 尙古正心的 서예관을 바탕으로 하여 구현한 독창적 서예세계의 심미 특징을 분석하고, 그가 진정 추구했던 大樂의 예술경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石田의 學書와 尙古正心的 書藝觀



그림 1. 황욱(黃旭, 1898~1993)

Figure 1. Hwang Wook

黃旭은 1898년 고창군 성내면에서 德軒 黃孝翼의 5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平海, 호는 石田, 南固山人, 七峯居士 등이다. 15대를 이어 내려온 전통적인 文翰世家인데, 특히 7대조인 頤齋 黃胤錫(1729~1791)은 조선 후기 3대 실학자로서 正祖 때 서양의 전유물이었던 천문학을 조선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킨 실학사상의 거장이다. 이러한 명문가 후예이며 거부로 불릴 만큼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낸 石田은 6세 때부터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시조와 가야금 등을 익히는 등 六禮(禮·樂·射·御·書·數)를 두루 수양하였다.

1913년(16세) 순창 출신 만석꾼 집안의 盧希淑과 결혼하였는데, 이듬해인 1914년(17세)에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활동하였고 훗날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芹村 白寬洙(1889~?)의 권유를 받고 서울 중앙고보에 입학하

였으나 유가적 가풍이 엄격했던 부친의 완강한 만류로 인해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퇴하고 귀향하였다.

이후 1918년(21세)에는 律契會 모임인 三·九會 창단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거문고와 가야금 등에 심취했으며, 중국 법첩과 국내 명필들의 필첩을 연마하며 한학에 더욱 정진하였다. 하지만 일제치하에서의 압박과 침략정책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울분과 亡國之恨을 달래기 위하여 1922년(25세)에 처숙부 松溪 盧秉權과 함께 金剛山 頓道菴에 입산하여 불도 수행하면서 왕희지와 구양순, 조맹부체 등을 집중 연마하였다. 1930년(33세)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왕희지체를 바탕으로 한 동기창과 미불체를 잘 구사했던 紫霞 申緯(1769~1847)를 私淑하면서 儒者의 교양과목인 六藝에 일로매진하였다. 石田이 紫霞에 심취한 것은 紫霞가 시·서·화에 능한 삼절작가로서 그의 독창적이면서 품격높은 작품세계를 숭모하였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기보다는 시대를 앞서 나가며 보다 근본적인 예술심미와 조형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자다운 면모를 존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적은 그의 초기작에서 자주 관찰된다. 한편, 해서에서는 엄정한 균제미가 특징인 歐陽詢(557~641)을 많이 임서하였고, 해서와 행서에서는 근골이 풍부하고 웅장함과 기백미를 갖춘 顏真卿(709~785)을 숭모하였다. 또한, 생명력과 역동감이 풍부한 李三晚(1770~1847)의 필의가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흔적이 작품에 드러난다.

石田은 젊어서부터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이자 일제가 문치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했던 ‘조선미술전람회’에는 전혀 출품하지 않았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분노와 망국의 한이 깊었기에 일제가 운영하는 일체의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적 행위이자 일종의 소극적 저항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한국 서단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앞장서서 민족문화운동을 펼쳤다. 1945년 9월에 오세창, 안중원, 고의동, 손재형 등이 주축이 되어 ‘조선서화동연회’를 결성하였으며, 1946년 8월에 ‘해방전람회’라는 이름으로 제1회 서화동연회전을 개최하였다. 특히 素田 孫在馨(1903~1981)은 일제 강점기에 ‘書道’를 ‘書藝’라는 독립적 용어로 변화시켜 공식적인 명칭이 되게 하는 등 한국서단 발전에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시국이 점차 안정되면서 미술계도 통일되면서 1949년에는 처음으로

‘국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후 이 대회는 1981년 제30회까지 이어졌으며, 1982년부터는 官 주도의 국전을 개혁하여 ‘대한민국미술대전’으로 변경·개최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한국 서단은 꾸준히 변화·발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된 서단의 흐름 속에서도 石田은 끝내 작가 등용문이자 출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 ‘국전’에 출품하지 않았고 오로지 구도자와 같은 자세로 書道의 길을 묵묵히 재추하였다. 훗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서예란 하나의 기능이기에 앞서 마음을 切磋琢磨하는 수양의 도구이며,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면 남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는 글씨는 정신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그 소회를 밝힌바 있다.(MBC-TV 다큐멘터리, 『시대와 인물 : 握筆의 大家 石田 黃旭』(1999. 7.26. 방영) 참조.)

이로 보아 石田에게 있어 서예란 자신의 哲理를 드러내는 절묘한 방식이었다. 즉 도덕의 예술화이자, 예술의 도덕화를 추구한 道藝一致의 서예관이다. 이러한 점이 서예에 임하는 그의 일관된 信念이었으며, 이는 石田을 세상의 중심에서 비껴나 강호에서 외길인생을 걸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지켜준 자기신념이자 예술철학이었던 것이다.

그후 1931년(34세)에는 정음으로 거처를 옮겨 육예와 서예에 전념하였는데, 이곳에서 芹村 白寬洙(1889~?)와 한문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爲堂 鄭寅普(1892~남북?), 동아일보 사장과 제2대 부통령을 지낸 친척관계인 仁村 金性洙(1891~1955) 등과 잦은 교류를 가지면서 이들로부터 명필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지냈다.(조선일보, 『産室의 대화 紙·筆·墨 벗 삼은 草野의 60年』, 1977. 10. 22. 기사 참조) 1939년(42세)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8대조 비문과 15대조 비문 등을 휘호하였다.

해방 후 石田은 가정적으로 큰 비운을 겪게 된다. 좌우 이념대립이 치열했던 이 시절 장남 황병선과 차남 황병욱이 좌익활동을 하였는데, 장남은 1950년 6.25 동란 때 회문산에 들어가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1953년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았다. 이에 石田은 상경하여 경무대에 매일 탄원서를 올렸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어렵사리 전달되었고, 石田의 글씨에 탄복한 이승만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주었고, 후에 추가 감형되어 황병선은 20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남 황병옥은 전쟁 중에 인민군을 따라 나섰다가 행방 불명이 되고 말았다. 이때 石田은 두 아들을 구하려는 시도로 모든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절망감과 사회적 감시로 인해 1954년(57세) 이후 전주와 고창을 오가며 스스로를 은둔생활에 가두면서 오로지 寄情筆墨과 詩琴에 몰입하며 불운한 세월을 달래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멈추지 않고 더 큰 고난을 예비하고 있었다. 잦은 환난으로 인해 정신과 건강이 지쳐 갈 즈음 1960년(63세) 초 무렵 오른손에 심한 手顫症으로 인생의 가장 큰 시련기를 겪었다. 정상적인 집필을 하지 못하고 장차 절필할지도 모른다는 좌절감으로 힘들어할 때 우연히 과거 중국에서 握管法으로 글을 쓴 서가들이 있었다는 문헌을 보았고, 이에 용기를 얻은 石田은 붓대를 손바닥 전체로 움켜 잡으면서 필관의 꼭지 부분은 엄지로 눌러 붓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운필하는 자신만의 握筆法에 주력하였다. 大字는 우수악필로 쓰고, 낙관 등 細書는 아직은 정상인 좌수를 활용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70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좌수 악필법을 창작활동에 적용하였다. 대략 1965년~1983년까지는 우수악필법을 사용했고, 이후 우수 악필이 어려워지자 1984년(87세) 이후에는 좌수악필법을 시도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이며 새로운 서예세계를 새롭게 펼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악필법으로 인해 서예가로서 전국에 명성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65년(68세) 부인 노희숙과 사별하고 실의에 빠졌으나 삼남 황병근이 금융계통에 취직을 한 1972년(75세)에는 전주로 완전히 이거하였다. 이듬해인 1973년(76세)에 황병근과 지역 유지들은 그동안 초야에 묻혀 기존 서단 활동과는 거리를 두고 오직 창작에만 몰두한 石田을 위해 전주 중앙동 소재 아담다방에서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첫 개인전을 마련해 주었다. 이 전시회는 石田의 독특한 서풍과 참룡이 비동하기 위해 꿈틀거리는 듯한 생명력 넘치는 필력으로 인해 의외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키며 서예가로서의 石田 黃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4년(77세)에는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喜壽 기념 제2회 전시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으니 罕觀의 서가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명필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후 매년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만년의 완숙된

서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1975년(78세) 황병근의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실 강진면으로 잠시 이사하였다. 1977년(80세)에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제5회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月印千江一體同>이라는 작품을 출품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서예관을 피력하였다.

옛말에 ‘월인천강일체동’이란 말이 있다. 옛 필첩을 두루 섭렵하고 익히다 보면 결국에 체(體)는 한가지란 뜻이다. 중국의 명필 조맹부·안진경·왕희지의 글씨가 얼핏 보기엔 개성이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글자를 보면 거의 같다. 결국 굵고 떤 데에는 한 체(體)가 달라서도 명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글씨를 잘 써서 세상에 알리는 게 아니라 붓을 쥐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며 붓을 쥐 때는 어깨에서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꼭 쥐어야 한다. 악법(握法)으로 하면 힘이 들어가 붓이 흔들리지 않는 대신에 고도의 수련이 필요하다. 글씨는 송곳을 잡아 모래 위를 긁듯 하고 머무를 때에는 진흙 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하라. 요즘 사람들은 그저 곱게 쓰려고 하는데 그보다는 필법을 섭렵하고 정심(正心)으로 써야 한다.(조선일보, 『産室의 대화 紙·筆·墨 벗 삼은 草野의 60年』, 1977. 10. 22. 기사 참조.)

이를 보면, 石田은 서예 자체를 내면을 尙古正心하고 修己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행 방편으로 삼아 평생 구도자와 같은 삶 속에서 ‘遊於藝’하며 회통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필법에 있어서는 송곳으로 모래에다 긁듯이 沈着險勁한 형세인 ‘錐劃沙’와 필력에 있어서는 진흙에 인장을 찍으면 깊게 들어가 기세있게 영원히 그 참모습을 보전하여 重厚壯健한 심미효과를 극대화하는 ‘印印泥’를 중요시 여겼음도 알 수 있다.

1978년(81세)에 다시 전주시 태평동으로 옮기면서 太平老人 아호를 사용하였고, 1979년(82세)에는 전주시 평화동으로 이사하면서는 平和老人 아호를 사용하였다. 1981년(84세)에 전라북도문화상 수상, 1983년(86세) 남산문화재단 문화예술상 수상하였는데, 1984년(87세) 이후에는 우수 악필이 곤란하게 되자 좌수 악필을 구사하였다. 이를 통해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모하고자 하는 참예술인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

1985년(88세) 롯데미술관에서 米壽기념 초대전을 개최하고 전주시 문화상을 수여하였다. 1991년(94세)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동아일보사 주최 회고전을 개최하면서 人書俱老한 필력으로 끊임없이 노익장을 과시하다가 1993년 향년 96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사후 1999년에는 서예문화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았다.

유작으로는 지리산 화엄사 일주문 현판(1988년), 경주 불국사 종각 현판(1988년), 전주 오목대 현판(1989년),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현판(1991년), 독립기념관 張建相先生語錄碑 등 1,500여 작품을 남겼다.

1999년 5월 삼남 黃炳權은 국립전주박물관에 石田의 유작 418점 등 5천여 점이 넘는 문화재를 기증하였고, 이에 국립전주박물관은 2002년 11월 상설전시관인 ‘석전기념실’을 개관하였다. 한편, 石田의 손자 黃邦衍은 1993년 제5회 대한민국서예대전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서맥을 이어가고 있다.

### III. 石田 서예의 美學的 특징

#### 1. 沈着適逸의 典雅美

石田은 芹村 白寬洙(1889~?), 爲堂 鄭寅普(1892~납북?), 仁村 金性洙(1891~1955) 등 여유있는 생활과 중국을 자주 왕래했던 지인들을 통하여 여러 중국 법첩과 국내 명가들의 법첩을 구하여 수련하였다. 石田이 처음 쓴 법첩은 歐陽詢(557~641)이 해서로 쓴 <九成宮醴泉銘> 비문을 탁본한 서첩의 임서본이었다. 이 비문은 歐陽詢이 76세 때 당 태종의 명을 받아 쓴 것인데, 자획과 결구가 方正謹嚴하고, 전반적으로 단정한 짜임새가 고도의 품격을 자아내는 서풍 발현으로 인해 해서의 극치로 칭송되고 있다. 이후 趙孟頫(1254~1322)를 통해 해서의 균제미와 행서의 유연함이 조화를 이룬 세련미가 넘치는 필법을 더하였고, 顏真卿(709~785)의 근골과 친진함이 잘 드러난 <爭坐位帖>을 임서하였다. 또한, 黃庭堅(1045~1105)의 호방한 자유로움과 “해동제일 초서의 거장”이라 일컬어지는 李三晚(1770~1847)에게서 생동미와 역동성이 강한 형세를 취했다. 특히 紫霞 申緯(1769~1847)의 예술세계를 숭모하였다.

(그림 2)는 미불과 동기장을 통한 왕희지법을 추구한 신위의 서풍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용필과 공교함을 초월한 자연과 천공의 자질을 중요시 여긴 신위는 왕희지

서체의 意인“談古虛和”가 서예의 참된 의미임을 들었고, 미불의 해서와 행서가 왕희지에 가장 근접했다고 비평하였다.(손일주, 『신위전집』, 태학사, 1983년, p. 1730.)



그림 2. 황욱, <운강서실(雲岡書室)>, 1964년,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Figure 2. Hwang Wook, <Ungang library>, 1964, Jeonju National Museum Collection

이 작품은 필획 운용에 있어서 왕희지의 典雅하면서도 힘찬 優雅美가 전반에 걸쳐 자리하고 있으며, 肥瘦의 변화와 橫劃의 우상향, 縱劃을 길게 뻗은 점 등에서는 미불의 특징이 느껴지나 미불과 신위보다는 다소 침착하면서 適逸(힘차고 뛰어난)한 느낌을 준다. 이는 유려한 행서작이지만 그 안에 근골을 담고자 한 시도가 역력하다. 예로부터 서가들은 근골을 형세보다 더 근본적인 필법으로 여겼다. 예컨대 張懷瓘은 『文字論』에서, “筋과 骨로 形을 세우고, 정신과 뜻으로 빛을 운택하게 한다.”(張懷瓘, 『文字論』, “以筋骨立形, 以神情潤色.”)고 하였고, 당 태종(李世民)은 “骨力を 얻는데 이르면, 形勢가 저절로 생길 뿐이다.”(李世民, 『論書』, “及得骨力, 而形勢自生耳.”)고 하여 근골이 형세보다 더 우선적으로 터득해야 할 서법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골력은 좋은 글씨를 쓰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천성적 예인 자질을 갖고 태어난 石田의 眞機 발현과 명가들의 장점을 접목시켜 성취한 極工을 통해 談古虛和한 자신만의 서예세계를 조화·창출하였다.

(그림 3)은 1944년(47세)에 전면은 예서로, 측후면은 해서로 쓴 <從仕郎墓碑文>의 前面이다. 方筆 위주의 篆隸 필의가 웅건하게 융합된 <張遷碑>와 優雅均整하고 秀美飛動한 <曹全碑> 필의가 섞인 漢隸風이 인상적이다. 방필과 원필로 이룬 투박한 근골과 부드럽고 원만한 波勢 그리고 다소 풍만한 혈육이 서로 적절한 肥瘦로 신묘하게 어우러졌고 다소 의도적으로 정제된 장법이 본인의 성정을 그대로 반영한 듯 작품 전체에 沈着適逸한 안정감과 典雅美를 발현하고 있다.

형식이 우향으로 갈수록 점차 올라가는 결구로써 변화를 준 시도는 조선 말기~근대기의 대표적 서예가이며

한국 근대서예사의 실질적 개창자로 평가받는 惺堂 金敦熙(1871~1936)의 필의가 엿보이는데 이는 당시 서단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惺堂의 필적을 적용한 듯하다.



그림 3. 黃旭, <從仕郎墓碑文 前面>  
Figure 3. Hwang Wook, <Front side of Jongsalang Tombstone inscription>

孫過庭(648~703)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自矜者)은 향상의 길이 막혀서 이를 유도하여 진보시키는 길이 두절되어 있으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自鄙者)은 이를 지도하면 향상시킬 수 있다”(孫過庭, 『書譜』, “自矜者, 將窮性域 絕於誘進之道. 自鄙者, 尚屈情涯 必有可通之理”)고 하였다. 제대로 된 法古의 수련이 없는 自矜者는 依樣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경계한 것인데, 그것은 저급한 수준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도를 벗어나 崎路에 들어서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고 正心의 자세로 法古를 통해 自得創新을 추구해야 한다. 이처럼 石田은 매사 겸허겸손한 유자의 자세로 철저하게 법고를 학습하는 한편 당대 신서예 흐름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자가 서풍을 끊임없이 도모하였다.

## 2. 重厚壯健의 握筆法

石田은 1960년(63세) 초 무렵 오른손에 심한 手顫症으로 인해 좌절하다가 우연히 握管法을 접하고 불굴의

의지로 자기화하였다.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와 필법을 재창조해낸 그의 정신력과 의지, 그리고 서예에 대한 열정은 당시 뇌졸중을 극복하고 좌수서예가로 유명했던 劍如 柳熙綱(1911~1976)과 쌍벽을 이룬다는 평을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독창적 약필법으로 인해 서예가로서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石田은 약필법으로 쓸 때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글씨를 너무 써서 손에 무리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약필을 쓴 건데 오른손으로도 안 되어 왼손으로 옮겼지요. 부분적인 기교나 잔글씨를 쓰는 데는 불편하지만, 글씨에 힘이 넘치고 활달하고 웅건해요.”(이정화, 「石田 黃旭 翁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 여성백과, 1990년 12월호, 1990, p.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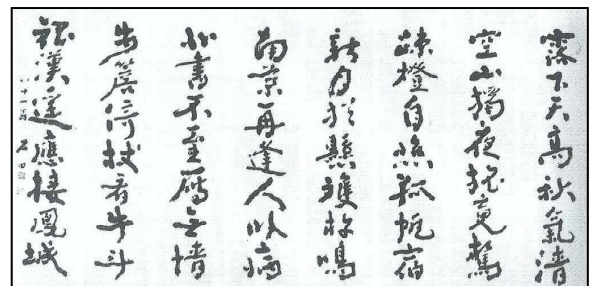


그림 4. 황욱, <두보 시> 8폭 병풍, 33×129cm, 1978년, 개인소장  
Figure 4. Hwang Wook, <Dubo poet> 8width folding screen, 1978, personal collection

(그림 4)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애잔하게 느껴지는, 노년에 이른 杜甫(712~770)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칠언율시 “秋夜”를 1978년(81세)에 우수약필로 쓴 행서작이다.(杜甫, 「秋夜」, “露下天高秋氣清, 空山獨夜旅魂驚, 疏燈自照孤帆宿, 新月猶懸雙杵鳴, 南菊再逢人臥病, 北書不至雁無情, 步簷倚杖看牛斗, 銀漢遙應接鳳城.” 이슬 내린 하늘은 높고 가을 기운 맑은데, 빈산에 홀로 지새는 밤 나그네 마음 두렵네. 낡은 등 처음 밝힌 외로운 돛단배는 머물고, 초승달 아직도 걸려 두 다듬이 질 울리네. 남쪽 국화 다시 본 사람은 병들어 누웠는데, 북쪽 소식 아직 없어 기리기만 무정하네. 처마 밑 걸으며 지팡이 짚고 견우와 북두성을 보니, 은하수가 멀리서 응하며 장안으로 이어지네.)

이 작품은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은둔자적하는 문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허정한 심화와 “無爲而



無不爲”(힘이 없어도 하지 않음이 없음)한 천진난만한 기예를 필획·결구·장법으로 절묘하게 표현하였다. 골력을 통해 느껴지는 嚴勁한 필력과 졸박함 속에 스며든 여유롭고 유연한 필세는 마치 大巧가 도와 서로 합치하여 일종의 정신 경계에 도달한 技進乎道の 예술경지와 大巧若拙의 서예심미를 동시에 보여준다.

石田 본인이 언급하였듯이 악필법은 정밀한 서법은 아니지만 힘이 넘치면서 느리고 빠른 운필로 웅장한 필운을 드러낸다. 孫過庭은 『書譜』에서 빠르고 느린 超逸과 遲留의 운필에 대해 논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느림의 운필도 모르면서, 빠름의 운필을 구사하기도 하고, 또는 빠른 필법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느린 필법을 본받아 익히려고 한다. 모름지기 서예가 힘 있고 빠르다는 것은 超逸에 다다르게 되는 계기요, 느리다는 것은 서예의 맛을 즐기고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극치의 지경이다. 빠르게 쓸 수 있는데도 느리게 쓰면 여러 미감을 한데 모으는 경지에 이를 수 있지만, 빠르게 쓰는 줄도 모르면서 오로지 느림에만 빠지게 되면 결국 絶倫의 묘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孫過庭, 『書譜』, “至有未悟淹留, 偏追勁疾, 不能迅速, 翻效遲重. 夫勁速者, 超逸之機, 遲留者, 賞會之致. 將反其速, 行臻會美之方, 專溺於遲, 終爽絶倫之妙.”)

실상 빠른 운필은 배우기 쉬우나, 단순하면서도 느린 운필은 오히려 습득하기가 더 어렵다. 빠른 운필은 기세를 좇는 것이고, 느린 운필은 멋을 추구하는 것이다. 서예가 勁速한 것은 超逸에 다다르게 되는 계기요, 遲留는 서예의 맛을 즐기고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극치의 지경이다.

이처럼 서예에서 ‘遲’와 ‘速’의 법칙은 전적으로 속도라는 관점에서 線의 예술적 비밀을 찾는 것이다. 빠른 운필은 勁利·飛動·風神이 드러나는 필획을 얻는다. 그러나 한결같이 급하고 빠르게만 운필하면 형세와 태세를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느린 운필은 穩重·沈着·端莊하면서도 힘있는 필획을 얻는다. 하지만 줄곧 더디고 무거워 전적으로 遲澁에만 힘쓰면 神氣와 風彩를 잃고 만다. 가장 훌륭한 조화는 활발발한 생동미가 있고, 아름다우면서도 근골이 있으며, 엄격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혈육을 유지해야 한다.

이 작품에서 石田은 전체가 기세로 충만한 초일과 지류의 운필을 잘 융합한 우수악필로써 자신의 개성을 살린 陽剛之美의 엄중한 風神을 드러내며 무궁한 심미 가치를 발산하였다.

이 動因은 바로 ‘筆의 動’이다. 筆의 움직임은 작화시 내면 정서의 기복과 파동의 영향을 받아 드러난 것으로 어떤 때는 평안하고 부드러우며, 어떤 때는 세차게 솟구치는 등의 筆情을 형성한다. 이처럼 작가의 감정이 필세를 결정하고 필세는 기세를 가져오며 이 필세의 변화는 기운의 韻으로 드러난다.



그림 5. 황욱, <용상봉무(龍翔鳳舞)>, 49.8×272.7cm, 1990년, 국립전주박물관

Figure 5. Hwang Wook, <The dragon flies and the phoenix dances>, 1990, Jeonju National Museum Collection

(그림 5)는 石田이 1990년 오른손의 마비 증세로 인해 제대로 쓰지 못하여 결국 좌수악필법을 개척하여 쓴 행서작이다. 93세라는 세수가 믿어지지 않으리만치 말년의 노익장을 과시하였는데,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도 石田에게는 그저 당연히 넘어가야 할 산이요, 채우고 나아가야 할 웅덩이요, 좌절의 벽이 아닌 새로운 경지로 환골탈태하는 도약의 발판이었던 것이다.

石田이 구축한 악필법은 무의식적으로 고정관념화된 기존의 법칙이나 형식으로부터 탈경계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예술정신에서 제기된 것이다. 노자의 이른바 “어떤 언어로 설명되거나 규정되어 지는 것은 영원불변한 진리가 될 수 없으며,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결코 영원불변한 이름이 아니다.”(『老子』 제1장,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는 명계에 충실했던 것이다. 어떤 고정된 틀이나 격식에 위해 규정되어지지 않은 純白의 天然之性을 간직하면서 자유롭고 무한한 필법과 필의를 창조해내는 그 신념과 지고지순한 열정,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한국서예사에서 독보적 존재로서 그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켜 주었다.

이 작품은 “龍翔鳳舞”이다. 상서로운 용이 비상하여 산천초목과 만물을 이롭게 하니 봉황이 기쁨의 춤을 춘다는 내용이다. 좌수악필로 쓴 필획은 미세한 점획의 처리에 있어서 무딘 듯 투박하지만 오히려 생경하면서도

근골이 넘친다. 그리고 沈着險勁한 錐劃沙와 重厚雄健한 印印泥한 개성적 필의는 기이한 신운을 자아내며 역대 서법과 인위적인 기교를 초탈한 天然拙樸함으로 기존 서법을 뛰어 넘는 독창적인 石田體를 이루었다.

#### IV. 결 론

호남 서부의 전통적인 文翰世家이자 顧齋 黃胤錫의 7대손으로서 엄격한 유가 가풍 아래 자란 石田은 일찍이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六禮를 두루 수양하며 풍류와 풍요 속에 성장기를 보냈다. 하지만 일제치하를 맞아 亡國之恨을 견딜 수 없어 금강산 돈도암에 입산하여 불도 수행과 서예 수련에 전념하였다. 6.25 전쟁의 역사적 혼돈기에는 두 아들의 좌익활동으로 인해 가정적으로 큰 아픔을 겪으면서 가산마저 탕진되었다. 이처럼 인간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詩琴筆墨에 의지하고, 올곧은 선비정신과 민족애를 잃지 않으며 尙古正心하였다. 그리고 세속적인 감각의 쾌락을 초월한 無己無欲의 ‘참된 즐거움(大樂)’속에서 자득하고 소요유 하였다.

石田의 학서과정은 특별한 스승없이 왕희지·구양순·안진경·조맹부와 신위·이삼만 등의 서체를 집중 연마하였다. 그리고 백관수·김성수·정인보 등과 교류하며 격변하는 시대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며 중국의 법첩과 서적류 등을 두루 섭렵하였는데, 천성적 예인 자질을 갖춘 그는 極工을 통해 명가들의 장점을 접목시켜 자신만의 서예세계를 완성해 갔다.

한편, 젊어서부터 律契會 모임인 三·九會에 가입하여 가야금·거문고·양금 등을 연주하는 등 자연과 인생, 그리고 예술이 혼연일체가 된 풍류 속에 遊於藝 하였다. 이러한 삶의 자세와 생활은 특히 환갑 이후에 찾아온 수전증으로 인해 절필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신체적 장애와 한계에 대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강인한 의지력을 발휘하여 자신에 맞는 필법을 正心으로 몰입하며 ‘盈科而後進’하였고, 쉬임없는 집념으로 自強不息하였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범접치 못할 雄健剛氣의 악필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예품과 예격으로 환골탈태하였다.

石田은 1965년~1983년까지는 ‘우수 악필법’을, 그리고 우수악필마저 곤란해진 1984년~1993년 시기는 ‘좌수 악필법’을 사용하였다. 악필법은 미세한 자획은 쓰기가

어렵지만 운필의 생동감있는 율동과 간략화로 이룬 虛和에 의하여 장법을 구사하면서 독특한 경지를 발현하였다. 1973년(76세) 그동안 초야에 묻혀 기존 서단과는 거리를 두며 창작에만 몰두한 石田을 위해 삼남인 황병근과 지역 유지들은 첫 개인전으로 회혼기념서예전을 마련하였고, 이 전시는 서예가로서의 石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개최된 전시회를 통해 전국에 명필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의 필법은 역대 서법과 인위적인 기교를 초탈하여 天然拙樸한 본성을 발현하여 生硬하면서도 근골이 넘친다. 그리고 沈着險勁한 錐劃沙와 重厚雄健한 印印泥한 개성적 필의는 기이한 신운을 자아내며 기존 서법을 뛰어 넘는 독창적인 石田體를 이루었다. 이러한 업적 못지않게 환난과 역경을 초월하여 이룬 그의 불굴의 의지와 서예정신은 한국서예사에서 독보적 존재로서의 그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켜 주면서 후학들에게 여전히 귀감으로 남는다.

#### References

- [1] 《MBC-TV》 documentary, 『Time and Person : master of hand grabbing calligraphy, Seok Jeon Hwang Wook』 (Aired on July 26.)
- [2] 《Chosun Ilbo》, 『Dialog of birthplace : paper-brush-ink made friends for 60 years』, (October 22, 1977. article.)
- [3] Son Il-ju (1983), 『The Book of Shinwi』, Taehak Publishing House.
- [4] Jang Hwa-Kwan, 『Theory of Texts(文字論)』
- [5] Lee se-min, 『Nonseo(論書)』
- [6] Son gwa-jeong, 『Seobo(書譜)』
- [7] Lee Jeong-hwa (1990), 『Seok Jeon Hwang Wook, the last scholar of this era』, Women's Encyclopedia, December 1990 issue.
- [8] 『Laozi(老子)』